

# 전국 수어(手語)지명의 유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 Folktale of Sign Language Place Names

박문희, 정옥찬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Moon-Hee Park(pmoonh2223@hanmail.net), Wook-Chan Jeong(337j@daum.net)

### 요약

이 연구는 전국 수어지명의 유래에 대한 것으로 수어지명에서 나타나는 한국수어 형태론적 특성과 어원론적 형태를 통해 유래를 알아보려 전국의 한국농아인협회 각 시·군 지회를 통한 간행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어지명에서는 한자, 한글, 외래어 등에서의 차용성보다 토박이 수어지명 즉, 농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된 수어지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명은 해당 지역의 문화, 정체성 등과 함께 역사를 나타내는 소중한 문화유산에 해당한다고 볼 때에 수어지명에 나타난 풍부한 도상성, 토박이 수어지명은 농문화 혹은 한국수어에 있어 보존, 전승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어지명의 유래가 해당 지역의 특산물,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한 수어지명이 현대에 이르러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변화되었거나, 특산물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어지명에서 볼 수 있는 농인의 시각중심적인 한국수어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농문화사적인 자료보존 차원에서 매우 값진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농인 | 농문화 | 한국수어 | 토박이 수어지명 | 한국수어지명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Korean sign Language of the linguistic form and the etymological forms about the origins of the Korean national sign languages. The general sign language has been shown through previous research all of place names from Chinese character except Seoul and Lmsil. And then, Sign language's form and origins which are current using in order to examine what kind of feature were analysed through interviews and publications in Korean association of the deaf people. As a result, it was analysed that was composed majority. indigenous sign language Korean place names were made and used by deaf than loan word character of Chinese characters, Hangeul and loanword. When we consider that place names were correspond to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representing the history with the culture and identity of the relevant area, we can worth of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o the abundant iconicity in the name of Sui. On the other hand the indigenous sign language korea place manes can worth deaf culture or korean sign language. Even If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area have been changed or local product was disappeared in this situation by The origin of sign language reach in modern time local specialty by geographical form It continued over generation. This can be regarded as the Korean sign language of the form in the way of visual. It will be very valuable heritage in the preservation deaf culture.

■ keyword : | Deaf | Deaf Culture | Korean Sign Languages | Indigenous Sign Languages | Korean Sign Language Place Name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의 이름을 한자어로 ‘人名’이라고 한다면 땅의 이름은 ‘地名’이라고 할 수 있다. ‘땅이름’ 영어로는 ‘place name’으로 ‘place’는 지구과학이나 자연지리에서 말하는 ‘地表’가 아닌 그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이다[1]. 땅이름에는 땅 자체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적 전통성을 함께 가지게 된다. 지명은 그 지역의 지역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2]. 그러므로 지역 문화를 연구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지명에 대한 부분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명환은 지명에는 그 지명을 만든 사람들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 있고 ‘생활 모습, 문화발전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3]. 천소영은 ‘인명과 지명 두 고유명사는 지상에서 삶을 영위 하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다.’라고 하였다[1]. 이처럼 지명연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 문화자산’, 언어자료로서의 가치를 두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일반지명에 대한 이러한 연구 가치를 바탕으로 수어지명연구는 한국수어연구 및 농문화 연구에 있어 수어언어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이면서 극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아래에서 몇 가지 연구자료를 살펴보았다. 한국수어를 통한 어원적 의미와 형태론, 조어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진권은 수위, 수형, 수향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았다[4]. 수화의 위치에 기초한 의미로 이마에서 표현되는 대부분의 수화의미는 인생, 정신적 활동을 나타내고, 코에서 표현되는 수어는 가치평가, 외형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전정례는 기본적으로 수화의 단어는 문법형태소가 없고 대부분이 실질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립어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5]. 또한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는 수형, 수위, 수동, 수향, 체동 등 몇 개의 수화소로 이루어지며 각 수화소는 유의미소이다. 시각적 변별요소인 수화소를 음성적 변별요소인 음소나 형태소로 인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창욱은 수화서적에 나타난 어휘명으로 그 어휘를 구성하는 조어 형태소의 수를 분석하여 단일수화와 복합수화로 나누어 조어법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6]. 하나의 수화 어휘에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어휘들을 복합수화로 분류하였다.

이울하는 한국수화언어의 구조는 하나의 자립형태소로 구성되는 단순구조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결합되는 복합구조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였다[7]. 한국수화언어의 단순구조는 한국어의 단순어와 동일하지 않으며, 음성 언어의 음소(phoneme)에 해당하는 수어소(手語素)의 수행(手形), 수(手位), 수동(手動), 장향(掌向), 비수지기호(非手指記號)가 동시·계기적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단순형태소로 이루어진 구조로 본 것이다. 단순구조의 유형은 수어소의 변동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한 손 수화언어 형태소와 두 손 수화언어 형태소로 나누었다. 수화언어 형태소는 결합 과정에서 두 형태소가 동시적으로 녹아 붙어 표면상 분석이 어려운 하나의 구조로 보이지만, 두 개 이상의 자립형태소가 동시적으로 결합하여 별개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한국수어의 언어학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수어지명의 유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수어지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종래에는 수어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명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지명학, 지명 언어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최초 우리나라 지명연구가 비록 일본학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1960년대부터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지명연구가 이루어져 왔다[3]. 이처럼 1984년 이후 ‘한국지명학회’에서는 지명학 관련 연구물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또한, 국어학계에서는 지명이 지닌 언어적 측면을 강조하여 ‘地名語’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8].

실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명에 대한 다양한 언어학적 연구가 이어지고 있었다. 변선영은 ‘진주지역의 지명연구에 있어 형태, 음운론적 연구’를 하였으며[9], 이희승은 ‘청주시 새 도로명의 형태론적 연구’[10], 손진희는 ‘홍천군 지명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10], 박소현은 ‘양산 지명연구에서 형태론, 음운론적 연구’를 하였다[11]. 이처럼 지명어(地名語, Place name)에 관한 연구는 형태론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특정 지역, 전

국단위 등의 지명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조명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지명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민들에 의해 오랜 세월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반지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명에는 그 땅 그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문화, 역사, 정치적 이해까지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어지명 역시 농인에 의해 오랜 세월 해당 지역에서 사용 되어온 언어 자료로서 한국수어 언어학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어지명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는 일반지명어에 나타난 많은 문화, 역사적인 이해를 위한 배경이 되는 만큼 수어지명에 대한 연구는 농인에 대한 이해, 혹은 농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 자료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어지명 관련 연구는 이올하, 정옥찬의 연구가 유일한 상황에 있다[7][13]. 이올하는 수어지명은 농인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지역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였다[7]. 즉 수어지명에는 농인들의 지역 내 생활양식, 인지적 주요 요소, 지리적 특성 등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어지명연구는 지역 농민 사회의 문화발달을 파악할 수도 있다[13]. 그러므로 수어지명연구는 농문화사(農文化史)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지명연구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계승, 보존, 발전을 위해 수어 지명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명에는 지명의 조어시기, 자연환경, 특산물 등 지명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지명어의 구조적 특징은 어원적 의미 탐색에서 지나칠 수 없는 요소들이다[14]. 이처럼 지명수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수어의 어원론적인 배경에 대한 인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명에 담긴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수어의 어원적 의미 파악을 위한 언어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전국수어지명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수어지명의 유래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수어지명에 녹아 있는 한국수어의 '형태론적 특성' 및 한국수어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어원론적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수어지명의 형태론적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전국수어지명의 어원론적 형태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자료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지회에서 자체 제작된 미간행 자료, 인쇄물, 한국수어사전에 나타나는 수어지명을 통해 수어지명의 유래가 서지 자료에 수록된 부분에서 유사성과 상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서로 대조분석을 하였다. 자료는 전국농아인협회(각 도협회) 전화로 문의결과 현존하는 아래의 [표 1]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하였다. 그 외 우편, 지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 전국수어지명 서지자료

	자료명	지명 어휘수	발행처
1	부산지명 요래 쓰이소(2015)	16개	사)한국농아인협회부산광역시협회
2	부산지명 요래 쓰이소(2016)	16개	사)한국농아인협회부산광역시협회
3	전국지명수화(2016)	205개	사)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4	강원도지명수어(2012)	18개	사)강원도농아인협회
5	서울특별시수어지하철역명(2018)	25개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서울수화전문교육원, 서울특별시
6	제주수어 100선(2017)	3개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7	경상북도농아인협회 산하지부지명수화(2014)	24개	사)경북농아인협회 수화문화원

### 2. 연구 방법

문헌학적 연구 방법으로 전국수어지명 도서 및 도감자료(강원도, 경기도, 서울, 부산, 충남, 충북), 한국수어사전, 등에 나타난 수어지명(시, 군, 구 단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수어지명 분석단위를 '시, 군, 구'로 제한한 것은 7개의 문헌 자료에서 3개의 자료에는 '동'에 이르기까지 지명에 대한 유래가 나와 있었지만, 4개의 자료에는 '시, 군, 구'에 해당하는 지명만 수록되어 있었다. 또한, 7개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총 307개의 수어지명 중

다른 자료들은 모두 해당 지역에 대한 수어지명만을 수록하였으나, 자료 3번 '전국지명수화'의 경우 전국의 수어지명을 수록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수어지명에서 동일 지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숫자로 235개의 지명을 대상으로 '시, 군, 구'에 해당하는 수어지명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12]에 나타난 분석방법으로 각 지역의 수어지명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지역에서 실제 사용 중인 자료와 서지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13]에서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농인을 대상으로 영상촬영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국 농인 대상 촬영은 무리가 있어 이율하, 정옥찬의 연구 당시에는 없었던 다양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에 유래에 관계 기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중 수어지명 표현이나, 유래에 관한 설명이 서로 상이 한 경우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되, 해당 지역의 농인 협회, 농인 교회 등의 대표자(지부장) 및 직원(농 통역사)을 영상전화 연결을 통해 지역 내 실제 사용 중인 수어지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자료들 이외 서울시청, 인천광역시청, 한국농아인협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였다. 그것은 해당지역의 수어지명이 지역 로고 표현에서 유래되었음을 알아내고 재확인을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였다. 한국수어에서 지명어는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독자 어, 차용어, 단순어와 복합어 전용어와 비 전용어라고 하는 분류항목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복합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조어 형태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수어의 일반 조어 형태와 지명 수어의 조어 형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집된 수어지명 자료들은 모두 각 단체의 고유 출판, 인쇄물이며 연구목적에 따라 제시된 수어지명의 사진은 모두 연구자에 의해 섭외된 농인 모델의 수어 표현이다.

### III. 연구 결과

#### 1. 전국수어지명의 조어형태

##### 1.1 형태론적 분석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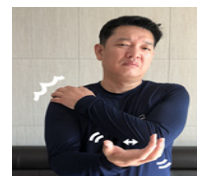
고, 둘 이상의 형태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15]. 이에 수어지명에서의 형태론은 수어의 표현 단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소리와 의미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수어에서는 표현과 의미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수어지명의 표현에 있어 표현의 횟수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단일어, 합성어 등으로 구분하였다[16]. 본 연구에서 수어지명의 형태론적 분석에서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수어에서 어휘는 단일어와 복합어의 개념이 일반 언어학에서 보고 있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수어 사전에 의해 '어깨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분명 두 어휘로 나타내지만, 실제 표현에서는 한 손을 어깨에 대고 '아프다'라는 수어를 표현하거나, 혹은 아픈 표정(비수지신호)을 나타냄으로 어휘적으로는 단일어로 보는 특징이 있다.



어깨(수어)

아프다(수어)

그림 1. 동시적 결합구조



어깨 아프다

그림 2. 동시적 결합구조

일반 지명은 대부분 한자의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수어지명에서의 조어 형태는 단일어 혹은 복합어의 구성 성분 분석을 통해 수어지명에서도 한국수어의 특징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1.1.1 단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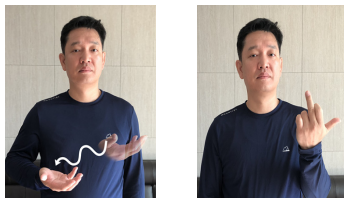
단일어 내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수어지명의 경우 우세손(dominant hand)은 수어 표현에 있어 중심이 되는

손, 비우세손(nondominant hand)은 수어표현에 있어 분명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보조적인 역할의 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8].

일반 지명에서는 단일어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합성어 및 파생어로 구성[9]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전체 235개의 수어지명 중에서는 합성수어지명이 71개, 단일수어지명이 164개로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지명의 조어 형태가 모두 합성어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은 한자어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수어지명에서도 한자어에 대한 음차에 의한 수어지명은 복합어 성격을 띠는 조어 형태가 다수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전, 충주, 옥천, 광주, 인천 등 대부분 음차에 의한 수어지명 중에서는 일반 지명어와 마찬가지로 복합어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음차에 의한 수어지명이 아닌 양손수어 형태, 혹은 도상성에 의한 수어지명들의 조어 형태에서는 단일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수어지명에서 양손 수어의 경우 각각의 손이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한 손은 강(江)을 나타내고, 한 손은 산(山)을 나타내고 있다. 강과 산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어지명으로서 양손을 순차적이 아닌 단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글에서는 강과 산이 전혀 다른 요소가 이루어져 복합어로 볼 수 있지만, 수어에서는 양손으로 동시에 결합하여 각각의 수어 형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복합어가 아닌 단일어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수어에서는 '동시적 결합구조'라고 본다[19]. 그래서 강원도는 두 개의 어휘로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수어에서 동시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내고 있으므로 단일어에 해당된다.



강(수어) 산(수어)  
그림 3. 동시적 결합구조.

강원도  
(수어지명)



그림 4. 동시적 결합구조

이처럼 일반 지명과 달리 수어지명은 언어적 기반이 상이함으로 인해 단일어와 복합어의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음성언어에서의 지명어 표현과 시각적 언어에서의 수어지명표현에 있어 조어 형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수어지명의 독특한 특성이 수어 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우세손- 단일어 내 우세손에서 나타난 수어지명은 도상성에 의한 수어지명이 7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상성'에 대한 설명은 합성어의 전부, 후부요소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부가설명을 하지 않는다. 전국수어지명 분석대상 시, 군 235개 지명 중 우세손에서는 도상성 이외 한글, 숫자, 한자를 활용한 수어지명역시 발견 되었다. 특히 한글을 활용한 수어지명이 22개로 숫자 2개, 한자 활용 6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상성에 의한 수어지명 역시 14개로 분석되었다. 즉 우세손에 의한 수어지명은 대부분 한글음, 한글형에 의한 수어지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도상성, 사상성 역시 주로 우세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비우세손- 수어지명이 대부분 우세손에서 더 높은 의미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세손의 표현을 보조하는 형태의 비우세손은 한글, 한자 등 모든 요소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비우세손의 경우 한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도상성, 사상성, 토박이 수어지명 등을 제외한)수어지명은 모두 83개로 나타났다.

이상 단일어 및 단일어 내 우세손, 비우세손을 살펴본 결과 단일어 수어지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지역이었으며, 반면에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특징은 해당지역 내 시, 군, 구 단위에서 단일어와 합성어의 비율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단일어 수어지명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의 9개 행정구역에서 모두 단일어 형태의 수어지명이 분석되었다. 반면에 대구지역은 차용어중, 토박이 수어지명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수어지명은 모두 단일어로서 한글음, 한글형과 도상성, 사상성을 결합한 형태의 수어지명이 우세한, 비우세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1.2 합성어

①통어적합성어

통어적합성어란 합성어 내에서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각 단어의 의미가 서로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를 말한다[20].



춘천시

춘川  
따뜻하다  
+  
내 천

그림 5. 춘천 수어지명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따뜻하다'라는 온도, 기온을 나타내는 자연적 요소와, 냇물이라는 지리적 요소는 서로 '자연'이라는 맥락 안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수어지명들을 합성어 내에서 '통어적 합성어'라고 명명하였다.

수어지명에 있어 통어적 합성어로는 전체 235개 수어지명 중에서 24개, 비통어적 합성어는 47개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4개의 통어적 합성어는(강동구, 양천구, 인천, 광산구, 과천시, 양주시, 오산시, 포천시, 삼척시, 화천군, 옥천군, 충주시.. 등) 모두 한자, 한글의 음, 혹은 형태에 의해 서로 결합 된 경우로 나타났다.

②비 통어적 합성어

'비 통어적 합성어'란 통어적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각 단어의 의미 및 단어형태에 있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결합 된 경우를 말한다.

통어적 합성어와는 달리 '부천'의 경우 '부자'라는 수어와 한자어의 냇가를 나타내는 '천'(川)이라는 수어 표현은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맥락에서도 서로 상이한 것임

로 본 장에서는 비 통어적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비 통어적 합성어는 글자+도상, 사상+문화적 요인, 도상+자연 등으로 결합 되어 있었다. 일반 지명에서 통어적, 비 통어적 합성어에 대한 연구는 [12]의 "양산 지명 연구 형태. 음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가 있었다. 여기서 통어적 합성어는 비 통어적 합성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어지명의 합성어 조어 형태를 통어적, 비 통어적 요소로 구분해 본 결과 일반 지명에서 나타난 현상이 수어지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2 합성어의 전부요소 및 후부요소

본 장에서 다루는 부분은 수어지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수어지명의 형성에 있어 일반지명의 명명성과는 달리 지역 농민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농민에 의한 수어지명이기 때문이며, 또한 수어지명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농문화적 요소를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1 전부요소

전부요소, 후부요소의 구분은 [10]에서 나타난 것으로 지명의 어원적 특성,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전부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부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시 도상성, 사상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10].

①도상성

전부요소에 해당하는 수어지명으로 도상성에 해당하는 수어지명 경북에서 23개, 서울지역에서 28개, 경기도에서 30개 순으로 지역들 가운데는 경기도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오산 (경기)

전부요소  
동물-새

후부요소  
자연-산

그림 6. 오산 수어지명

경기도지역 수어지명의 전부요소에 나타난 도상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로 들면 ‘鳥山’ ‘오’는 ‘까마귀 오’자인 데 까마귀가 ‘새’의 일종으로 ‘새’의 부리 모양을 형상화 하여 표현함으로 전부요소에서 도상성을 통해 수어지명이 유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도상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토박이 어중 부분에서 역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강원지역은 차용어중(한글, 한자의 형태, 음차)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②사상성

전부요소에 나타난 사상성은 모두 46개로 후부요소의 14개에 견주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상성은 후부요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사상성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수어지명에서 대체적으로 전부요소에 집중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1.2.2 후부요소

①도상성

후부요소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난 도상성은 자연(빛, 산, 강, 바다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부요소의 도상성(지리, 자연, 특산품, 문화, 사물, 도안, 동물)이 모두 53개중 24개가 ‘자연’ 부분에서 나타난 것은 유사도상성으로 볼 수 있는 지리, 특산품 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단독(자연) 24개는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송 (경북)



그림 7. 청송 수어지명

경상북도 청송군의 ‘주왕산’을 형상화 한 도상성에 의한 수어지명이다.

②사상성

전부요소와 달리 후부요소에서 특별히 미약하게 나타난 것은 ‘사상성’이었다. 전부요소(46개)에 비해 후부요소의 사상성은 30%에 그쳤다.

사상성의 대부분은 차용어에 해당하는 한글음, 한글

형, 한자음, 한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즉 한글, 한자의 발음소리, 글자형태를 빌어 수어지명이 표현된 것이다. 수어지명에서 의미하는 사상성은 수어가 나타내주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상징적, 내면적(심리적) 의미를 포함한다.

2. 전국수어지명의 어원론적 형태

2.1 수어지명의 차용어중(섞임말)별 형태

‘차용어중수어지명’이란 한글, 한자, 숫자, 외래어에서 글자의 형태(字形), 혹은 그 의미를 차용하여 명명된 수어지명을 말한다. 즉 수어지명이 글자의 자형이나 의미, 수어지화, 영어의 알파벳 지화를 활용한 지명의 종류를 말한다.

①한자어 자형(字形) 차용 수어지명

한자의 형태를 차용하여 표현된 수어지명은 전체 235개 지명 중 49개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대표로는 제주도를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충남의 경우 한글음, 한자음을 차용한 수어지명은 나타났으나 한자의 형태를 차용한 수어지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전(大田)(수어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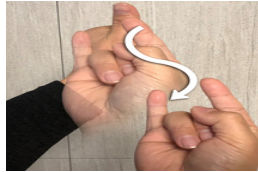
그림 8. 대전 수어지명

한자를 음차하여 수어로 표현한 수어지명이다.

②한글형(指話)

한글형 차용 수어지명은 자음, 모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수어에서는 ‘지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지화(指話)는 235개 시, 군, 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음을 차용한 수어지명을 사용하였으나 전국수어지명에서 유일하게 횡성(강원), 의성(경북) 두 지역에서는 모음을 차용한 수어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음에서도 중모음으로 ‘니’, ‘니’를 차용한 수어지명이었다.

횡성  
(강원)



중모음 '니'  
한글지화

그림 9. 모음의 형태를 차용한 수어지명

제천  
(충북)



x / y  
한글지화

그림 10. 자음의 형태를 차용한 수어지명

③영어 지화

연수구(Yeonsu-'Y')는 전국에서 유일한 영어 지화 알파벳을 차용한 수어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지역의 이러한 현상을 토박이 수어지명, 차용 수어지명과 함께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은 차용어 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예상대로 토박이 수어지명은 인천지역 수어지명에서 45%로 낮게 나타났다.

울릉도 수어지명이 수어 표현상으로는 영어 알파벳지화 'Y'를 나타내고 있으나 울릉도 현지(영상통화) 직접 확인 결과 영어 알파벳이 아닌 인근지역인 독도와 유사한 표현으로 독도에 비해 큰 섬으로 배를 대는 큰 항구의 섬, 독도는 이에 반해 작음(수어에서 새끼손가락표현) 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다는 표현이 알파벳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상성에 의한 수어 표현이었다.

울릉도/독도  
(경북)



그림 11. 울릉도 수어지명

좌측 손 엄지손가락은 큰 섬을 의미하고, 새끼손가락

은 울릉도를 뜻하고 있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우측 손을 '배' 형태의 수어 표현으로서 좌측 손 엄지에 가까이 붙여놓을 경우 '울릉도'를 뜻하고, 새끼손가락에 가까이 붙여놓을 경우 '독도'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수어사전에서 울릉도는 '올다'라는 수어와 '섬'이라는 수어를 순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독도' 역시 한글지화 'ㄷ' 과 '섬'을 결합한 수어지명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④음운(한자, 한글의 소리)

괴산(괴물), 속초(초), 보은('보'의 보석), 등과 같은 지명은 한자음, 한글음을 차용한 수어지명이었다. 그것은 모두 92개로 한글, 한자형에 의한 수어지명이 100개 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대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보은, 괴산 등의 음차사용 수어지명들은 실제 그 음을 의미하는 지명은 아니었으나 글자 형 그대로 소리 내어 나타나는 의미를 수어로 차용하여 나타낸 수어지명이었다.

⑤숫자

숫자는 서울과 경기, 경북 단 세 지역에서만 나타났으며 한글음을 차용한 수어지명이었다. '구리', '구로', '사천', '칠곡' 네 지역 모두 숫자 9, 4, 7 숫자에 대한 음차 수어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토박이 수어지명의 형태

토박이 수어지명이란 한자어, 한글, 외래어의 자형 혹은 의미를 차용하지 않은 지명을 말한다. 즉 지역의 특산품, 지형, 등 시각적으로 드러난 물체, 지형,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지명을 토박이 수어지명 이라고 할 수 있다.

토박이 수어지명은 시각적 언어체계의 농문화를 나타내는 주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농인 입장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쉽게 드러난 물체 혹은 지형을 활용한 수어지명을 토박이 수어지명이라 할 수 있다.

①지역특산품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수어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편만하게 나타났다. 경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과, 인삼, 치즈 등 실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대표 작물로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사과  
(경북)



그림 12. 대구=사과 수어지명

②자연

토박이 수어지명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활용된 자연은 대체적으로 산, 강, 바다, 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수어지명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강원, 영남, 호남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실제 자연물에 대한 직접적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닌 한글 음차에 의한 수어지명을 사용하면서 동구, 서구 등 해가 뜨고, 지는 도상성에 의한 수어지명들이었다.

표 2. 지역별 토박이 수어지명

지역	서울	경기	경북	강원	경남	울산	인천	충북
자연	7	8	3	3	4	2	2	0
지역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자연	3	6	2	3	1	2	6	1

③동물 및 곤충

수어지명에 나타난 동물에 관한 것은 대부분 한글음, 한자어의 의미 차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실제 동물, 곤충의 도상성에 의한 수어지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충북 '괴산' 수어지명을 '괴물'로 표현하고 있었다.

괴산  
(충북)



그림 13. 괴산 수어지명

그러나 '괴물'이라는 수어는 한국수어사전에 없는 명칭이었다. 다만 '멧돼지'라는 수어표현이 이빨 양쪽에 뿔이 난 모양을 뜻하는 수어표현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

었으나 '괴물'이라는 수어표현과는 다른 것이었다.

④지리적 요소형태

지리적 요인에 의한 수어지명은 해당 지역의 지형을 수어로 나타낸 지명이 대부분이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의 땅 모양을 활용하였고, '포항'의 경우 동해안에서 포항지역의 국토 모양을 착안하여 수어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박이 수어지명의 8가지 분류 중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지리적 요소형태 부분이었다. 도심권과 달리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난 지리적 요소 수어지명은 산, 강 등에 의한 지형의 시각적 형태 혹은 의미를 나타낸 수어지명이었다.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섬 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리적 요소에서 섬을 나타내는 수어지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4개 지역은 비우세손의 수위, 수형이 동일한 가운데 우세손의 수형에 의해 수어지명이 달리 표현되고 있었다.



완도군  
수평선  
'마지막'



해남군  
수평선  
중모음 ㅞ



진도군  
수평선  
ㅈ

그림 14. 섬 지역 수어지명

⑤문화적 요소형태

문화적 요소라 함은 수어지명에서 지역의 전통문화, 고적지, 음식, 의상 등에서 착안한 수어지명을 말한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ㅈ'을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돌리는 동작을 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하나인 상모돌리기를 표현하였다.

영월  
(강원도)



그림 15. 영월 수어지명

영월군의 경우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과거 석탄 탄광촌 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었던 시절의 갱도용 모자의 등불을 묘사한 수어지명이었다. 이처럼 문화적 요소의 수어지명은 지역의 대표관광, 문화, 유적지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고, 그것의 현재 존재 유·무를 떠나서 한 시절 일지라도 그 지역을 알리고, 대표할 만한, 즉 이해하기가 쉬운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수어지명이 '자연'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⑥사물 요소형태

사물을 활용한 수어지명은 235개 수어지명 중 19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지명의 음차에 의한 사물표현, 실제 지역에 존재하는 인지도 높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⑦도안

지자체의 상징 그림을 나타내는 수어지명이 235개 수어지명 중 8개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특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도안을 확인한 결과 그림의 형상을 표현한 수어지명이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중랑구 (서울)

그림 16. 중랑구 수어지명

서울의 '중랑구'에 대한 수어지명표현은 해당지역의 도안을 수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⑧인물을 대상으로 한 수어지명

토박이 수어지명 내에서 특이한 수어지명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한 인물을 나타내는, 즉 한 인물의 어떤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형태의 수어지명이었다. 전북 '장수'에서 사용되는 수어지명은 아래와 같다.

장수(전북)  
 <지명의 유래>  
 논개-임진왜란 당시 기생의 신분으로 적장과 함께 끼안은 채 물에 빠져 목숨을 바쳤던 여인의 행동을 모방하여 양손 각지를 긴 채 옆으로 돌려 배에서 떨어지는 형상의 수어지명이다.



그림 17. 장수 수어지명

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전국수어지명에서 나타나는 한국수어의 형태론적 특성과 어원론적 형태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시각 중심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사용하면서 수어지명에서도 시각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많은 부분이 조어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어지명에는 농민의 전통문화, 사고와 의지가 녹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수어지명에서 나타나는 한국수어의 형태론적 특성은 조어 형태를 중심으로 단일어와 합성어로 크게 나누어 본 결과 단일어 수어지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대구지역으로 9개 행정구역에서 모두 단일어 형태의 수어지명이 분석되었다. 합성어에서는 다시 통어적 합성어와 비 통어적 합성어, 그리고 합성어의 전부요소, 후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35개 수어지명 중에서 먼저 통어적 합성어는 24개, 비 통어적 합성어는 47개로 나타났다. 모두 한자, 한글의 음차 혹은 형태에 의해 서로 결합 된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성어에서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에서는 도상성과 사상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부 요소에서 나타난 도상성은 모두 30개, 사상성은 76개였으며, 경기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국수어지명의 어원론적 형태 분석은 차용어종별 수어지명 형태와 토박이 수어지명 형태로 분석하였다. 먼저 차용어종별 수어지명분석 결과에서는 한글의 형태, 음차를 활용한 수어지명이 235개 수어지명 중에서 11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래어 차용어에서는 인천지

역의 수어지명 '연수구'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알파벳 'Y'자를 활용한 것이었다. 숫자를 차용한 수어지명으로는 서울, 경기, 경북 세 곳에서 나타났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수어지명은 대체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토박이 수어지명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활용된 것은 자연 즉 산, 강, 바다, 해 등의 순으로 이 또한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났다.

셋째, 전국수어지명연구에서 충청북도지역을 비롯하여 문헌 자료들 간에 상이한 표현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지역의 농민협회를 통해 영상전화를 통한 확인 과정에서, 문헌 자료에서 수어표현 사진, 설명 부분에서 비수지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수어에서 비수지 요소는 매우 중요한 문법적 역할을 감당한다[20]고 할 때 수어지명은 회화적, 혹은 문법적 기능을 가지기보다 단순 지명에 대한 표현이므로 비수지 요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 농민의 담화과정에서 수어지명이 사용된다면 문맥 내에서 개인의 경험이나, 의미에 따라 비수지 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 2. 제언

먼저, 과거에 사용되었던 수어지명은 대부분 고령층 농민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인천' 지명을 '심심하다'라는 수어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또한 한자 어형에 의한 인천 지명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세대 간, 시대 간 지명이 조금씩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혼용되고 있는 원인과, 차이를 어원론적, 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 수록, 보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울릉도, 인천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어지명과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어지명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역의 문화와 특성이 잘 나타난 지역민의 수어지명 중심으로 수정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1] 천소영, "지명·지명어의 의미," 畿甸語文學, Vol.14-15,

pp.313-330, 2003.

- [2] 윤홍기, "한국지명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예비토론," 한국문화역사지리, Vol.24, No.3, pp.1-15, 2012.
- [3] 최명환, "영월군 지명에 투영된 지역의식 연구," 江原民俗學, Vol.22, pp.253-275, 2008.
- [4] 장진권, *한국수화의 어원적 의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5] 전정례,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접근," 한국어교육학회 학술저널, Vol.83-93, pp.299-316, 2002.
- [6] 강창욱, "교과관련 수화에 대한 형태론적 분석," 특수교육연구, 제38호, 제1권, pp.1-21, 2003(6).
- [7] 이윤희, "강원도 수어지명의 언어학적 연구," 한겨레어문연구, 제4집, pp.713-739, 2009.
- [8] 강병기, 장은미, 박경, "지명의 관습법적 효력과 명명권에 관한 연구," 법학총론, Vol.25, No.1, pp.141-175, 2012.
- [9] 변선영, *진주지역의 지명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0] 이희승, *청주시 새 도로명의 형태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1] 손진희, *홍천군 지명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2] 박소현, *양산시 지명연구 형태, 음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3] 정옥찬, *충청북도 수화지명 유래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4] 윤병천, 김철관, *한국수화로 본 수화어원론입문*, 열린책장, 2017.
- [15] 조명한, 이정모, 김정오, 신현정, 이광오, 도결수, 이양, 이현진, 김영진, 김소영, 고성룡, 정혜,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16] 윤병천, 정옥찬, 고인경, "조선손말 형태론적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제4호, pp.137-156, 2016.
- [17] 윤병천, *한국 청각장애자의 사용수화 어휘 빈도 조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8] 이주애, *한국수어의 비우세손에 관한 언어학적 특성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9] 이윤희, *한국수어의 동시적 결합구조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0] 김철관, 윤병천, *수화통역학개론*, 양서원, 2011.
- [21] 윤병천, *한국수화의 비수지시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9.
- [23]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2019.09.20.
- [24]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index.do>, 2019.09.20.
- [25] 한국농아인협회, <http://www.deafkorea.com/ver/>, 2019.09.20.

**저 자 소 개**

**박 문 희(Moon-Hee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 미술치료학과(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재활학 박사재학

〈관심분야〉 : 재활, 수어, 미술놀이치료, 심리상담

**정 옥 찬(Wook-Chan Jeong)**

정회원



- 2010년 8월 : 나사렛대학교 재활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재활학 박사재학

〈관심분야〉 : 재활, 수어, 미술놀이치료, 심리상담